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資料 編(12)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大韓齒科醫師會臨時總會—

△……大韓齒科醫師會 臨時總會는 1949年 10月 21日 國立서울大學校……△
△……齒科大學 講堂에서 開催되었다. ……△

▲ 會順=開會, 國民儀禮, 開會辭, 來賓祝辭, 會務經過報告, 臨時執行部選舉, 討議事項 가. 診療科名改稱의件, 나. 醫療用金配給에 관한件, 다. 其他事項, 閉會辭, 閉會.

▲ 出席者(無順) 來賓 李長源醫政局長, 金喆肅齒醫務課長, 徐丙瑞齒醫務係長, 金正和口腔衛生係長, 李龍基朝鮮齒科機材社長

代議員 (서울) 安炳植, 文箕玉, 朴鍾文, 趙鋪起, 金岐宇, 張明鎮, 崔燦九, 李鳳珪, 丁南鎮, 曹基沆, 京畿林榮均, 全南金性度, 黃洞淵, 全北林澤龍, 慶北崔海雲, 李鍾奭, 慶南金淳培, 忠南任霄燾(忠北, 江原缺)

이날 午前 10時 保健部來賓을 맞이하여 緊張하고 尊嚴한 가운데서 臨時總會는 開催되었다. 李聖民總務의 司會로 國民儀禮가 끝나자 金溶瑯委員長의 開會辭, 이어 來賓祝辭에서 保健部長官의 祝辭를 李長源醫政局長이 代讀하고 金喆肅齒醫務課長의 祝辭가 있는다음 金委員長의 其間의 經過報告가 있었다. 臨時執行部選舉에서 多數要請으로 金委員長이 議長에 林澤龍을 指名委囑하고 書記에 金載天, 崔義鍾등을 林議長의 委囑就任했다.

▲ 討議事項 ① 診療科名改稱의件
金委員長으로부터 中央保健委員會에서 科名改稱을 力說하였으나 認識들을 하지 못해 大端히 困難하다는 要旨의 說明을 하자.

朴鍾文(서울)=지금 醫政局長이 臨席하고 있으니 局長의 意見과 그 進行狀況을 듣기로 하자.

議長=우리가 좀더 討議를 하자.

黃洞淵(全南)=齒科醫에게 對한 認識을 고치기 爲하여 改稱을 必要로 한다면 그 方法이 어면지? 緊急患者가 發生했을때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우리自身이 그 必要를 잘들 認識하지 못한다.

安炳植(서울)=지금 여기서 우리가 過去에 使用하던 <齒科>란 診療科名을 <口腔科>라고 改稱하자는 것을 다시 論難할 必要가 없다. 지난 定期總會에서 고치기로 滿場一致 決定된 것을 그 實行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함이 必要하지 그 必要性을 되풀이해서 討議할 必要는 없고 그 實踐方法만을 具體的으로 討議하자(一同拍手)

議長=좋은말이다. 過去 數年間に 걸쳐 本總會에서 充分히 그 必要性을 檢討하고 可決하여 作定한 것이니 지금다시 原案을 檢討할 必要는 조금도 없다. 그間 기 實行에 있어서 委員들이 여러가지로 交涉을 했으나 實現化하지 못한 것이니 앞으로 取할 方法을 研究하고 論議하자. 좋은 方法을 말해주기 바란다.

趙鋪起(서울)=아까 委員長의 經過說明에 있어서 좀 不鮮명한 點이 있었다. 中央保健委員會에 齒科醫가 2名 뿐이라서 그런 難關에 逢着했을 줄 믿는다. 齒科에 관한 法案은 齒科出身으로 委員會를 만들어 口腔科醫師法을 推進시킴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金鍾玉=醫師와 齒科醫師가 過去에는 分立되었으나 앞으로는 좀더 緊密히 接觸하고자 하여 醫師口腔科醫師

法이라고 해서 草案을 했음을 나는 잘안다. 그러나 中央保健委員會에서 口腔科란 것이 否決된채 法制處로 넘어간 模樣인데 우리가 앞으로 公私間으로 法制處에 運動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一般醫師는 우리의 口腔科改稱을 그들의 領域侵犯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나는 그 趣旨를 모르겠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討議하여 醫師法과 分立시켜서 法案을 起草하여 國務會議에 提出해야 할 것이다. 醫師가 醫師法을 起草하여 그 法案을 通過시킬 수 있다면 齒科醫는 齒科醫師法을 草案하여 通過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醫師口腔科醫師法이 通過안되면 分立하여 推進시키자.

文箕玉=아가 委員長의 說明을 들으면 그 實踐化에 있어서 希望點이 보이고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臨時總會는 召集할 必要가 없으니 오늘 會議에는 그것을 討議하지 말고 다른 案件을 討議하자.

崔義鍾=文先生말을 들은 들으면 至當한 것 같으나 現在 우리가 當하고 있는 바는 法案을 上程하여 討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李迪柱=앞으로 多少希望이 보이기도 한다고 委員長이 說明했으나 그것은 可望性이 있다고 하면 있기도 하고 없다고 하면 없기도 하는 것이다. 卽 保健部長官의 말씀은 齒科醫師會에서 法制處, 國會文教社會委員會등에 側面運動을 해보라는 말뿐이다. 保健部에서 齒科醫의 顧치않는 것을 法制處로 돌렸으나 우리는 그것을 反對하는 運動을 展開시켜 當局에 運動해야 할 것이다.

崔海雲(慶北)=中央保健委員會서 金, 朴兩先生の 反對에도 不拘하고 法制處로 넘긴다면 우리는 兩先生을 同委員會에서 脫退시켜서 우리는 齒醫法을 獨立시켜 推進하자.

文箕玉=現委員이 力量이 不足하여 後援할 사람을 選出하자면 모르거니와 다른 긴 이야기는 不必要하다. 여기서 應援을 請하든지 그냥하기로 하든지 두가지中에 한가지를 作定하여 簡單히 處決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감이 좋다고 생각한다.

趙鏞起(서울)=現委員이 推進에 關한 腹案을 말하여 줘야 좋겠다.

安炳植(서울)=醫師領域을 侵犯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良心의으로 告白하는 바인데 醫師가 그것을 曲解하고 있으니만치 方法으로서 齒科醫師法을 制定하는 委員會를 獨立시켜 推進시키기 바라며 現役員의 腹案은 어떤지 좀 듣자.

李迪柱=現役員으로서 이 重大한 問題를 到底히 擔當할 수 없으니 새로히 強力한 委員을 選出해서 推進시켜 주기를 바란다.

李醫政局長=여러분께 參考次로 이야기 한다. 醫師法

을 綜合하느냐 齒醫와 分立하느냐 또는 產婆와 看護員 등 保健關係者의 法令을 綜合하느냐 個別的으로 하느냐가 問題되었었다. 그러나 法律家의 意見을 들으면 各國에 있어서도 法은 작지만 單獨의으로 細別되어 가고 있다하여 우리는 全保健關係者의 法을 綜合하지 않고 醫師法을 따로 내게될 것이다. 그래서 事實은 醫師 齒科醫師도 別個로 하고자 했는데 一般의 이야기가 醫師와 齒科醫師는 大端히 緊密한 關係에 있고 將來에 있어서는 醫師와 齒科醫師가 綜合해야 할 運命에 있느냐만치 全保健關係者中에서 다른 法은 個別的으로 하더라도 醫師法 齒科醫師만은 合쳐서 만든 것이다. 口腔科改稱에 있어서 나는 여러분衆意를 尊重함은 勿論이다. 그러나 社會一般 또는 醫師도 있고하여 그들도 意見이 있으니 그것도 參考로 한다. 그리고 保健委員會는 保健部長官의 諮問機關에 不適當한 것으로 그들은 決定權이 없다. 說使 그들이 定했다고 반드시 實行되는 것은 아니다. 나 個人的으로 말하면 齒科나 口腔科나 아무것이라도 좋으나 社會一般이 認識하기에 <齒科>라 함과 <口腔科>라 함과 어느편이 便利하나? 이것이 問題될 것이다. 그리고 地金配給에 있어서는 앞으로 政府에서 地金を 確保하게 되면 勿論 配給하다고 總理가 發表한 바인데 그 時期는 아직 發表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은 金의 政府價格이 作定되지 않았다.

文箕玉=지금 李局長 말에는 口腔科나 齒科나 아무것이라도 關係없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實情으로도 지금 조금程度를 지나면 醫師와 齒科醫師가 對立할 虞慮性이 있다. 그러니 李局長은 口腔科의 變更이 達成될지 않될지 어느편을 할 수 있는대로 斷的으로 말해주기 바란다.

任靑嶽(忠南)=지금 局長의 말은 그대로 듣고 우리로서 進言할 것은 마르히 機會를 얻어 말하기로 하자

安炳植=局長으로서는 그외의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니 齒醫務課長이 그간의 經過에 關해서 詳細함을 듣기로 하자.

金喆庸課長=齒醫務課로서 어디까지 推進시켰는가에 對해서는 答하기 困難하다. 課로서는 口腔科로 推進시키고 있는 중이다.

安炳植=都大體 齒醫法草案이 어디까지 가서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할것인데 局長도 課長도 會에서도 다 잘 모른다고 하니 이것을 確言해 주기 바란다. 齒醫務課長이 齒科醫師法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른다니 말이 되나?

李醫政局長=그것을 구태어 묻지 말고 醫師中에도 그 方面에 있는 사람을 私的으로라도 對하여 說明도 하여 納得도 시키고 當局에도 運動을 하기 바란다.

任靑嶽=日帝時代에 있어서는 植民地政策이라 말할것

도 없고 解放後로는 더 均衡的發達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우리 齒科界니 生物은 愆心으로서 움직인다고 釋迦가 말했으나 醫師가 齒科醫師의 宣傳을 不利하게 하는 例가 많다. 우리가 우리 個人的 福利를 떠나서 國民保健 確保問題에 있어서 어느 便이 有利할가 이것이 問題이다 우리는 齒科醫의 發展及 國民保健 確保에 있어서 劃期的 運動을 일으키려 함이다.

安炳植=오늘 이以上 討論할것 없이 現委員이 積極的으로 推進시켜 주기 바란다(一同拍手) 그리고 齒科 醫師法의 獨立을 要求하는 運動을 中心으로 한 委員會를 新設하도록 要求하자.

金委員長=그렇게 하더라도 結局은 中央保健委員會를 通過해야 되니 뭐니해도 우리가 各保健委員에게 理解를 시켜야 될 것이다.

議長=齒科醫를 代表해서 두분이 나간 이 두분은 어디까지나 奮闘해야 할 것이다. 우리 地方에 있는 사람들은 中央의 人物들에게 依賴하고 있는 바가 큰데 지금 中央에와 보니 그 推進이 薄弱한 것 같다. 두분 中央保健委員이 積極的 推進을 시켜주기 바란다.

定炳植=地方會員은 서울에 있는 會員들을 信賴하고 있는데 力量이 不足하다 함은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事實인즉 金溶璠과 朴明鎭 두분은 우리가 總會에서 選出하여 派遣한 것이 아니고 官選으로 個人的으로 依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분은 積極的으로 鬭爭한 것이다. 同會에서 이 問題가 上程했을 때 두분이 猛烈한 主張을 하여 醫師側과 相爭한 結果 그러면 이 問題는 나중으로 미루자고 해놓고 나중에 再論을 하지 않고 法制處로 넘겨버린 不當한 行動은 保健部에서 한 것이지 決코 役員의 力量이 不足或은 誠意가 不足한 것이 아니다.

曹基沆(서울)=이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자꾸 보내지 말고 우리의 科名을 고침에 委員長만의 힘으로는 過大할 것이니 이 總會에서 <口腔科改稱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推進시키기 可하지 않을가 하여 이것을 提案한다.

崔海雲=委員長以下 各委員에게 一任한 것을 새로 다른 推進委員會를 選定함은 委員長의 活動範圍를 縮少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目的을 貫徹시키기에 大端히 重要한 時期니 만치 機會를 놓치지 말고 推進시키자.

曹基沆=나는 그런 意味가 아니다. 지금까지 委員長이 交涉해서 힘이 너무나 들어 引責辭任問題까지 擡頭된 만지 그를 補強하자고 한 것이다.

議長=그것은 金溶璠이 委員長의 資格으로 交涉한 것이고 昨年 總會에 있어서도 그 交涉의 全權을 一任한

것이다. 委員長의 지금까지의 努力을 感謝하며 同時에 앞으로 더 기쁨을 부어 推進시키자
崔海雲=現委員이 그대로 추진시키서 해보다가 期於히 않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即 其當時의 委員의 權限을 지금 우리가 討議해서 賦與하자.

趙鋪起=推進委員會를 構成하되 官公署要職에 있는 齒科醫와 地方委員長으로 構成하고 諸費用은 別途로 作定하자

金鍾玉=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時間이 없다. 그러나 崔경복의원의 말과 같이 推進시키자

一點心時間一 會의 經費가 貧弱한 理由로 不本意나마 遠來의 珍客인 各代議員에게 너무나 粗惡한 點心을 待接하여 委員長以下 各委員은 赤面을 禁치못한채 點心이 끝나자

<緊急事項> ① 現委員辭任의 件

金委員長=그間 여러분의 各별한 愛護와 鞭撻을 준대 對하여 滿腔의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모든일은 갈수록 重大한 일만 發生하는데 現役員으로는 現在까지도 여러분의 期待에 符合하게 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는 到底히 力量이 不足해서 감당할 道理가 없으니 此機會에 有能한 人物을 選出하며 重任을 맡김이 可하겠다.

安炳植=現委員의 辭任理由가 너무나 薄弱하다. 그들의 努力이 不充分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首肯할 수 있으나 그들이 最善을 다한다면 補強委員會를 新設한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時急을 要하는 現時期에 있어서 辭任은 우리들에게 大端히 不利한 것이니 그대로 推進하기 바란다.

金委員長=現役員이 그間的 일의 責任을 저서 辭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力量으로는 到底히 할 수 없어서 有能한 人物을 選出하여 이 難關을 突破하자는 것이다.

林榮均=現委員들의 誠意와 力量이 不足한 것이 아니고 客觀情勢가 不利했을 따름이니 辭任問題를 撤回하고 그대로 推進시키기 바라며 辭表受理를 拒絕하기를 動議한다.

安炳植, 金岐宇(서울) 再請

李迪柱=새로히 強力한 鬭爭委員會를 選出함이 可하다. 議長=動議의 可否를 물어 滿場一致로 撤回시키기로 可決.

② 支金配給에 關한 件

任胃燻=中央委員에게 一任하기를 動議한다.

林榮均=再請이다.

崔海雲=委員에게 좀더 努力을 부탁한다. 지난 總會時의 金에 關한 要請의 情勢와 지금 오늘날과는 많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相當한 金을 政府에서 確保

했을 것으로 믿는다. 過去의 口實은 5百kg이다(朝鮮銀行所有量) 이것의 齒科에 給量하고 나면 政府로는 大端히 困難하다 했으나 지금쯤은 相當한 量이 保有되어 있을 것이다.

李迥柱=保社部長官이 昨日 言明한 바는 大統領이 數個月만 참으면 꼭 配給하겠다고 確約했다고 하니 아마 다음總會까지는 꼭 配給이 있을 것이다.

金性度(全南)=漠然하게 委員에게 모든 것을 付託한다는 것은 無理가 있다. 오늘 이 臨時總會를 開催한 理由가 저기 揭示한 討議事項 가지고는 薄弱하다. 그 裏面에는 여러가지 苦衷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좀더 研究해서 現役員을 補任하는 推進委員會를 만들어 運動을 展開함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金鍾玉=至當한 말이다. 우리는 推進委員의 必要를 느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費用을 必要로 한다. 모든 交渉에 運動에 接觸에 費用이 必要하니 이 經費의 調達 없이 役員에게 일만 맡긴다면 到底히 어려울 것이다.

安炳植=그 經費를 새로이 特別義捐金으로 해야하지 既定의 會費로서는 不足할 것이다.

趙昊衍=經濟的 乏迫이 언제나 우리에게 活動을 不圓滑하게 하는데 이 根本的 治療를 하자. 우리가 억매인 여러가지 社會를 打破해야 될 것이다. 金性도가 말한 推進委員會도 經濟的 問題를 解決하는 한 方法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金鍾玉이 말하는 經費問題도 여러분이 熟考해주시기 바란다.

金性度=科名改稱, 金配給問題에 關한 推進委員會를 新設하기를 動議한다.

崔海雲=모든 方法을 委員에게 一任했으나 經費가 必要하다면 그것만 決定할 問題이지 지금 다시 推進委員會를 選出할 必要가 어디 있는가.

金性度=中央委員에게만 一任할 수가 없다. 勿論 一任함도 좋으나 推進委員會가 推進시키면 더한층 有効할

것이다.

金淳培(慶南)=모든것을 맡겼으니 새로 推進委員會를 創設할 必要가 없다.

趙昊衍二一任받은 委員이 補佐委員을 委囑할 수도 있을 것이다.

崔海雲=내가 中央委員이라면 各道代議員을 모아서 누구누구를 推進委員으로 모셔서 推進委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아까벌써 中央委員에게 委任한 것이니 經費만 討議하자.

曹基沆=推進委員會를 設置하자고 내가 動議해서 否決되었으나 지금 이 問題는 特殊한 것이니 名稱만이라도 다시 해서 氣分을 刷新하기 爲해서라도 推進委員會를 構成하기 바란다.

推進委員으로(無順)

安炳植, 李漢柱, 李世根, 任靑嶽, 金性度, 安鍾書, 林榮均, 林澤龍, 金昌圭, 崔海雲, 現委員會에서 上記 10名을 推進委員으로 推戴기로 可決

推進經費로 會員每人當 1千원을 可決

③ 其他事項

李迥柱=中央廳保 健部에서 金の 在庫量을 調査한다고 하니 이것이 도무지 웬말인가. 이에 對하여 우리는 좀 討議하기 바란다. 報告를 해야하나, 어떻게 할지...

金鍾玉=우리는 그동안 配給量보다 買入使用量이 더 많다. 報告를 하자면 買入量을 報告해야 할 것이다.

崔海雲=消費組合에 關해서 어떻게 되어가며 ECA材料 등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說明해 주시기 바란다.

議長=그것은 다른 機會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 副委員長補選件

申仁徹副委員長이 海軍軍醫로 入隊하여 現在 1名缺員 중인 副委員長은 委員長이 選定하여 委囑하기로 可決하고 大韓齒科醫師會 萬歲三唱裡에 閉會. 곧이어 忠武路 <南宮莊>에서 懇親會가 있었다.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賣買·修理·配達

瑞一齒材商社

朴陽淳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5街6의24

電話 (22) 7275